2023 김해 문화도시- 연구할LAB

# 「김해 도자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고찰」

연구자: 김 근 해

# 목차

1. 머리말 ····· p. 2

2. 개요- 김해 토기와 도자
2-1. 토기에 대한 조사 ····· p.3~5
2-2. 도자기에 대한 조사 ····· p.6~7
2-3. 옹기에 대한 조사 ····· p.8~10

3. 본문1- 김해 진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자체험
3-1. 제 28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도자체험 ····· p.11
3-2. 진례 도예가 도자체험관련 인터뷰 ····· p. 12~15
3-3. 분청도자박물관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도자체험 ····· p. 16~19

4. 본문2- 우리나라 도자 도시의 도자체험 온라인 조사 ····· p. 20~24

5. 본문3- 일본 도예체험 온라인 조사 ····· p.25~29

6. 마무리 ····· p. 30~31

## 1. 머리말

지난 10월 김해 진례 분청도자박물관 인근에서 제28회 분청도자기축제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분청도자기를 전면에 내세워 축제를 처음 시작한 김해에 코로나 이전 2017년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때 임진왜란 당시 김해에서 일본 큐슈로 끌려간 도공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아리타에서 민간 단체가 자비로 방문하여 도자접시로 만든 악기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 일본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도공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름 없는 도공들은 도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다 역사 속에 묻혀버렸고 그들을 기억하는 이들 또한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감사의 마음으로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김해의 도자문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김해는 가야왕도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훌륭한 가야 문화와 함께 시대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 왔고 지금의 김해가 지니는 특색 중 한 가지가 도자문화라고 생각한다.
김해 도자는 김해토기라는 우수한 기반에서 시작하여 그 연결고리는 계속 나아가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이어지고 지금은 진례에 많은 도예가가 공방을 열고 세계 최초의 건축도자미술관인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김해 도자역사를 뒷받침하는 가마터는 상동면의 골짜기를 따라 분청사기 가마터, 백자 가마터가 계속 발굴되고 있다. 이렇게 이어져 온 김해의 우수한 문화인 도자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가장 쉽고 친근한 방법이 도자체험이라고 생각한다. 도자의 재료인 흙을 만지며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성취를 느끼고 그 즐거움은 다시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김해 도자의 중심인 진례 지역의 공방에서의 도자체험 실태를 조사해 보고 또한 타 지역과 일본에서의 도자체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여 김해 지역 도자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2. 김해의 토기와 도자

1) 토기

불의 등장만큼이나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발명품인 토기.

자연의 재료인 흙이 물과 섞여 유기체처럼 다양한 형태를 지니다가 불을 만나 단단한 형태로 그 모습이 변해 만들어진 토기는 선사시대부터 인류와 함께 존재 해 왔으며 식량의 저장뿐만이 아닌 식량을 불에 익히는 용기로 식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김해에 위치한 가야 전문박물관인 국립김해박물관에 가보면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토기이다. 달리 말하면 가장 흔한 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흔한 토기에는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고대인의 문화와 과학의 집약체인 것이다. 잉여 산물의 저장 수단이었던 토기는 수납이라는 도구의 역할만이 아닌 제례의식의 용도, 옹관 등으로도 쓰였으며 상형토기를 통해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토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제작 기술의 변모와 함께 문화의 변천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⑴선사시대 김해 지역 토기의 변천

김해지역의 토기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부터 발굴되었다.

김해 지역의 최초의 토기는 신석기 시대 수가리 패총에서 출토된 덧무늬토기로 토기의 겉면에 진흙으로 만든 띠를 붙여 다양한 장식을 한,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보다 빠른 시기의 토기라고 한다.

신석기시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출토되는 빗살무늬토기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데 낙동강 중심의 지역은 중서부지역에 비해 아가리는 넓고 높이가 낮으며, 바닥도 둥근 형태에 가까운 바닥이 계란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빗살무늬토기 겉면의 규칙적이고 기하학적 문양은 점차 간략화하며 불규칙적으로 바뀌면서 청동기시대의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민무늬 혹은 무문토기로 불리는 토기는 정선되지 않은 태토로 빚고 거칠게 마무리한 후 노천에서 800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구워낸 적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 토기이다.

이에 비해 청동기시대 토기이나 적은 수량으로 출토된 간토기(마연 토기)는 정선된 태토로 빚은 뒤 표면을 문질러 매끄럽게 윤을 낸 것으로 그 제작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더 들였다는 점에서 실생활보다는 장례나 의례 등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붉은색 안료의 간토기는 생명, 벽사 등의 의미와 함께 방수 및 방습 기능이 뛰어나 액체를 담았던 그릇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⑵ 토기의 생산과정

삼한시대와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각각 와질토기와 도질토기로 이는 토기의 경도를 표현하는 말과 함께 생산과정을 내포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토기의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토기에 적합한 흙을 준비하는데 태토 내에 모래 알갱이나 돌가루가 많이 포함된 선사시대 토기에 비해 모래 알갱이나 돌가루가 적은 태토를 이용하여 토기의 형태를 만드는데 이 시기의 토기들이 좌우 대칭이 뚜렷한 것으로 보아 고속의 물레를 이용하여 성형하였다고 한다.

토기를 굽는 동안에 가마에 지속적으로 산소가 유입되는 산화염방식과 어느 시점이 되면 아궁이와 굴뚝을 막아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환원염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은 토기 내의 산소

와 철분 같은 성분들의 결합의 차이로 토기의 색상을 달리 하게 되어 산화염은 붉은 계통, 환원염은 회색 계통의 토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산소의 유입여부에 따른 색상의 변화와 함께 가마의 형태에 따라 효율성과 열 보존이 좌우되는데 천정이 없는 평요는 가마 온도가 600-800도 정도의 산화염으로 구워지는 반면, 바닥이 길고 경사진 등요는 1200도 이상까지 올리며 가마를 폐쇄하기 용이하여 환원염으로 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⑶와질토기와 경질토기

기원전 1세기 무렵 영남 지역에서 출현한 와질토기는 회색 위주의 색을 띠며 무른 기와와 같은 단단함을 가지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도질토기보다 굽는 온도가 낮고 흡수성이 강하다고 한다.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인 도질토기는 1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내 회청색을 띠며 두드리면 쇳소리가 날 정도의 경도를 가진 토기로, 형질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도질토기의 생산은 1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량의 땔감이 필요하며, 무덤의 부장품으로 생산하는 토기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생산되었고, 만들어진 토기는 이동이 되는 등 사회 다방면에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경질토기라고도 불리는 도질토기는 고온으로 구워 토기 표면에 자연유가 형성되며 도자기와 같은 단단한 형질을 가진 토기로 4세기 동안 김해 부산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외절구연고배와 파수부 노형기대라는 특정한 종류의 토기문화를 보여준다고 한다.

⑷ 가야토기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경질토기는 김해식토기 또는 도질토기로 불리는데, 사적 2호 봉황동 유적 패총에서 처음 발굴되어 김해식 토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일본 도자에 큰 영향을 끼친 우리나라는 시대를 거슬러 5세기경 일본 토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환원염 토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산원염의 토기인 하지키를 만들고 사용하였다가 5세기 지금의 오사카 지역에 환원염 토기인 스에키가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환원염으로 이행기의 토기생산이 없이 갑자기 출몰하여 일본 전역에 전파된 점과 금관가야 도질토기와 형태, 제작방법이 매우 닮은 점에서 금관가야인의 이동으로 일본에 이러한 토기가 생산되었다고 본다고 한다.

대성동 고분 출토 가야 토기

⑸김해지역의 토기 가마

①구산동유적: 삼계동 유적과 인접한 구릉에 위치한 구산동 유적 토기 가마는 반지하식 등요로 추정된다고 한다.

② 삼계동유적: 구산동 토기 가마와 거의 비슷한 구조와 시기를 가지며 가야멸망 이후 6세기 후기에서 8세기 무렵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③ 봉황동유적: 3~4세기 대 토기 가마 4기 발굴. 점토채취장, 요, 토기 제작 관련 수혈이 확인된다고 한다.
④능동 토기 가마: 규모가 작고 출토 유물이 적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5~6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⑤ 진례 송현리유적: 완전한 형태의 가야시대 토기 가마가 발굴되었는데 길이 7m, 너비 1.7m, 최대 깊이 1.6m 규모이며 가마의 아궁이, 연소실, 천장부분 등이 온전하게 남아 있고 검은 목탄과 적갈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를 발굴하였다고 한다. 삼국~조선시대 가마로 추정한다고 한다.
⑥대성동 가마: 삼한시대 가마터. 소성유구는 총 길이가 14m의 초대형으로 가마와 함께 가마터 옆의 부속시설에서는 각종의 생활 도구가 주로 발견되어 토기장의 생활시설 또는 공방으로 추정하며 가마터 유물은 기원전 1세기 남부 지방의 전형적인 구연부 단면 삼각형 덧띠토기와 함께 낙랑의 영향을 받은 와질토기, 일본 큐슈지방의 야요이 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1.「전문가가 들려주는 테마가 있는 가야 이야기-[삼한 삼국시대 김해지역의 토기문화]」 조성원. 대성동고분 박물관.
2.부경대학교 박물관 홈페이지
3.대성동고분 박물관 홈페이지

2) 김해지역 도자역사

김해지역의 도자역사를 분청사기, 백자 중심으로 하여 김해분청도자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⑴청자에서 분청사기로.

중국에서 수입된 청자의 기술은 고려청자를 탄생시키고 비취색의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생산이 되었는데 김해지역의 청자에 대한 확인은 14세기 중후반 운영한 것으로 추정하는 생림면 봉림리 청자요지에서 가마 1기와 추정 폐기장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청자에 상감장식된 것이 대부분이고 구산동유적, 죽곡리 유적 등 분묘, 건물지 유적에서도 청자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시대가 혼란해지고 청자 생산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고려 말부터 실생활에 사용하게 되는 분청사기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회청색 흙으로 만든 그릇에 백토를 입힌 후 여러 가지 기법으로 장식한 도자기인 분청사기는 고려 말 상감청자에서 유래하여 16세기 중엽까지 만들어졌는데 투박하고 민예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감, 인화, 박지, 귀얄, 철화, 조화, 덤벙 등 다양한 기법을 가지는데 고려의 상감청자가 상감분청사기와 인화분청사기로 새롭게 발전하여 상감분청사기는 왕실 의례용 등으로, 무늬가 비교적 규칙적인 인화분청사기는 왕실과 중앙 관청에서 평상시나 외교 사절을 접대할 때에 쓰였다고 한다.

김해지역에서 분청사기는 구산동 유적,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유적, 김해 고읍성과 무덤 및 성곽, 건물지 등에서도 출토되었는데 특히,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분청사기가마터는 가마 1기와 폐기장 3기가 확인되고 출토된 분청사기 유물만 3.123점이 나오면서 문헌에 등장하는 감물야촌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하는, 분청사기의 태동부터 변화 및 백자로의 전환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세종 때 발전을 이루고 세조 때에 번성기를 누린 분청사기는 청자, 백자와 달리 글자가 새겨진 그릇이 확인이 되는데 이는 관청, 지방, 장인의 이름 등을 새기도록 명하여 그릇들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폐단을 막고 분실을 방지하며 그릇을 책임지고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김해에서도 장흥고, 사선, 김해 등의 글자가 새겨진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

⑵김해지역 도자에 관한 문헌기록

김해지역 도자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경상도지리지』(1425) 김해도호부조에는 자기가 토산공물의 하나로 기록되어있고『세종실록지리지』(1454)에서는 "김해 도호부 동쪽 감물야촌에 하품을 생산하던 자기소 1개가 있다.",『변례집요』(1841)에서는 "1611년 3월, 동래부사 조존성 때, 왜인이 서계(외교문서)를 지참하여 찻그릇 보아(찻사발을 의미한다고 함)와 와기 등을 만들어줄 것을 청하여 김해 장인 도공으로 하여금 만들어 주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⑶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중국 명나라와 교류하면서 발전하고 유행하기 시작한 도자기인 백자는 세종 때부터는 임금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고, 15세기 무렵 경기도 광주에 분원 관요가 설치되어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백자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해지역에서도 백자를 생산하였고 백자 가마터가 확인되었는데 대감리 백자가마터, 묵방리

백자가마터가 대표적이며 이곳 가마터에서는 17세기 백자가 다량 출토되었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민수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유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도공들이 일본으로 대거 끌려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백자 생산이 정체되었다가 18세기 무렵 농업·상업의 발달과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백자 기술이 향상되어 왕실과 문인 취향의 청화백자가 유행하며 대중화·실용화되고 다채로워졌던 백자는 19세기 후반 왕실 재정이 악화와 외국산 도자기에 밀려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다가 고종 때 관요는 민영화되었다고 한다.

⑷김해의 분청사기에 관한 짧은 글.
청자나 백자를 들어본 이들은 많지만 분청사기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이러한 도자기의 역사를 이해하고 실물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역시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3대 도자기인 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한 눈에 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국립중앙박물관일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분청사기·백자 전시실에서는 2024년 4월 25일까지 '물고기가 첨벙! 어문(魚文) 분청사기'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 분청사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잘 꾸며져 있다. 그런데 중앙박물관의 조선시대 분청사기 지역을 표기한 지도에는 김해를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웠다. 분청의 고장을 자랑하며 분청도자기축제가 열리는 김해이지만 지역민들에게도 도자문화를 알리고 대외적으로 김해의 도자를 알리는 데에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김해의 분청을 알리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자료 출처
: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3) 옹기

클레이아크 미술관과 분청도자전시판매관 사이 주차장에서 진례면사무소로 이어지는 벽화거리는 도자테마거리로 조성되어 있다. 트릭아트 길을 지나 걷다보면 옹기골 진례에 대한 이야기와 옹기를 등에 짊어진 옹기장이의 모습이 그려진 벽화를 만나게 된다. 도자마을 진례를 설명하려면 옹기골의 이야기를 지나칠 수 없다. 지금은 도자공방과 분청도자박물관과 클레이아크미술관이 있는 진례 도예촌인 송정리 일대는 이전부터 옹기골이라 불리는 청곡부락이었다고 한다.

분청도자박물관에는 토기에서 도자기로 이어지는 역사와 분청사기와 백자에 대한 자료만이 있어 진례 옹기골에 대한 소개가 첨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거 생활의 변천으로 그 자리를 내어버리게 된 옹기이지만 우리 고유의 음식인 된장, 간장의 맛을 가장 감칠 나게 만들어주며 장독대가 늘어선 풍경만으로 푸근해지는 옹기의 역사에 대해 울산옹기박물관을 방문하여 옹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⑴ 옹기의 역사

옹기는 흙으로 빚어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구운 질그릇과 잿물을 입혀 구운 오지그릇의 총칭으로 흔히 도기로 불리는 옹기는 지금은 오지그릇을 총칭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도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시유 도기(유약을 입힌 도기)는 사적 제338호의 영암 구림리 가마터에서 발견된 구림도기로, 8세기경의 것으로 자기로 발달하기 이전의 것이라고 한다. 회색 경도기에 유약을 입힌 시유 도기는 9세기 영암 구림 도기 가마터에서 지금의 용기와 같이 1,200°c의 고화도로 유약을 입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오늘의 옹기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한다.

유약을 바르는 시유 도기는 자기에 비해 제작비가 저렴하면서도 자기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지녔기에 고려시대에는 고급 도기로 생산이 확대되었으며 녹갈색, 황갈색, 흑갈색 등 다양한 빛깔의 지녔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시유 도기는 고급 도기로 생산이 지속되었는데 조선시대 시유 도기는 17세기에 일본으로도 수출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적갈색시유 도기 옹기로 발전하여 시유 도기의 정점을 이뤘다고 한다.

⑵ 옹기의 흙과 잿물

옹기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흙으로 점력이 좋고 철분과 모래질, 유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장인의 입장에서 좋은 옹기토란 '만들기 편하고 불 때기 좋은 것'이라고 한다. 즉, 점력이 좋아 성형하기 쉬운 '찰진 흙'과 내화도가 강한 '불 힘 좋은 흙' 이 옹기토라고 한다. 옹기장은 과학적으로 점토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흙의 성질을 파악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점도를 29%(±) 수분으로 반죽하여 손바닥에 놓고 비벼서 굵은 철사 굵기로 만들어 손가락을 감아보아 균열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점토를 손가락으로 문질러보았을 때 까끌까끌한 모래가 없어야 하는데 만일 모래알이 있게 되면 소성 과정에서 규산분의 이상 팽창으로 인하여 바늘구멍 모양의 기공이 생기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옹기에 바르는 유약인 잿물은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재와 철분이 함유된 붉은 흙(약토)을 1:1의 비율로 물과 함께 섞어 만드는 것으로, 어떤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드느냐에 따라 항아리의 색깔이 녹갈색이나 적갈색, 혹은 흑갈색 등으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한다.

⑶ 지역별 옹기의 형태

옹기는 일조량과 기온 등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달리 한다.

북쪽지방으로 올라갈수록 배가 좁고 입이 넓다고 한다.

경기와 강원도 지역의 옹기는 남부 지역의 옹기 형태와 비교해보면 배가 덜 부르고 전과 밑이 넓은 편이며 강원도 옹기는 큰 독이지만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한다.

경상도 지역의 옹기는 어깨가 넓거나 계란형 두 가지의 행태를 많이 보이며 다른 지방에 비해 몸통이 뚱뚱하고 입이 좁은 것이 특징으로 전이 높고 무늬가 별로 없다고 한다.

전라도는 타 지역에 비해 어깨가 넓은 형태이며 어깨가 넓은 것에 비해 밑이 좁아 날씬한 느낌을 주며 전이 경상도와 경기도의 중간 형태로 높지 않다고 한다.

충청남도 지역은 전라도 형태와 유사하고 충청북도는 경기도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목 부분이 높고 약간 벌려진 형태가 많다고 한다.

제주도에서 흔히 사용하는 항아리 종류는 입과 바닥이 좁으며 배가 약간 부른 형태로, 도서지방이라는 지리적 여건상 식수문제로 인한 물허벅, 병, 물독 등 물동이가 발달하였으며 물을 부을 때 훼손을 적게 하도록 전이 좁고 배는 약간 부른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⑷ 문헌 속 옹기

옹기박물관에 소개되어있는 문헌 속 옹기에 관한 내용이다.

『삼국유사』에서 “甕(옹)이라는 단어를 문헌에서 찾아보면 삼국유사에서 천구의 머리를 옹만하다라고 비유하는 글에서 처음 찾아진다.”

『규합총서)』에서“옹이라는 말 대신 독이라는 단어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옹이 결국 독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임을 알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서 “옹은 도기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장을 담그거나 소금을 저장하거나 김치를 담그는 데 사용된다. 이 그릇을 [자서]에서는 ‘옹’ 또는 ‘앵’이라 한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는 쌀 저장용기로 큰 독을 마련하여 구제시설로 이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고 잡속 토산조에서는 과일 저장을 위해 도기를 땅 속에 묻어 보관할 뿐만 아니라

초의 저장용기로도 이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용기를 가리키는 말로서 대옹(大甕), 수옹(水甕), 와존(瓦尊) 등의 명칭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육전조례』, 『임원경제지경국대전』, 『고려도경』 등의 문헌자료 속 옹기에 대한 내용과 그림 속 옹기를 소개하고 있다.

⑸정리
어떤 이는 옹기는 ‘ongl’라고 표기해야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함축한 단어라고 말한다.
아이들에게는 풍습에 대한 이해를, 어른들에게 향수를 일으키는 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와도 관련이 깊고 민속자료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해의 도자사를 언급하고 지금의 도예촌 진례가 있기까지에 대하여 옹기골 진례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박물관에 도자기의 역사와 함께 전시가 되었으면 한다.

## 3. 김해 진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자체험

1)김해분청도자기축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도자기축제는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축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경주도자기축제, 문경찻사발축제, 강진청자축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그리고 분청도자기를 테마로 하는 축제인 김해분청도자기축제가 있다.

분청사기를 테마로 열리는 도자기축제인 김해분청도자기 축제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일원에서 28회를 맞이하며"분청, 천년의 복을 빚다!"의 슬로건으로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흘간 개최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열리는 축제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10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많은 축제가 열려 예상보다는 적었고 참가한 공방 수도 적었다고 한다. 분청도자기축제 현장에서 만나는 도자체험은 도자체험마당에서 행사 기간 동안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었다. 체험행사는 물레, 화장토 바르기 등 도자기 제작과정 모두를 체험하는 "김해분청도자기스쿨"을 2000원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청자토, 분청토, 백자토의 서로 다른 질감과 색감의 흙을 밟아보는 "신기한 3土 흙 밟기체험"은 무료로 진행되었다. 땅 속에 숨겨진 도자기를 찾는 "도자기 발굴체험"은 5000원의 참가비로 체험할 수 있었고, 분청토를 사용하여 코일링 기법으로 조형하는 "길게~높게~코일링 체험"은 1000원의 체험비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대회 및 단체행사로는 "우리가족 도자기 만들기 대회", "가족 흙높이 쌓기 대회","가족과 함께 하는 노천가마 소성"이 있었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대형도자기시연은 매년 열리면서 눈길을 끄는 행사이며 "분청토, 청자토, 백자토 3土 알아보기"는 도자에 대한 이해를 촉감으로 알아보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타 지역 축제에 대한 비교가 어렵지만 행사 장소의 접근성,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

2)김해 진례 지역 도자체험에 대한 도예가 인터뷰

김해는 분청도자기만을 주제로 축제가 열리기 시작한 지역이며 우리나라에서 이천 다음으로 많은 도예가가 있고 공예부분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명실상부한 도자의 고장이다. 경상남도 도자 부분의 최고 명장으로는 김용득(운당도예 2009지정) 이한길(길천도예 2011지정) 박용수(김해도예 2017지정)가, 김해시 최고명장으로는  강효용(선아도예 2020지정) 탁원대(우림도예 2021지정)이 있지만 아쉽게도 김해시민들도 김해 도자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지닌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일반 시민들이 도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체험이 있을 것이기에 김해 도자의 중심지인 진례 지역 공방의 도자체험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⑴ 예원요 강길순 작가와 인터뷰

예원요는 분청도자박물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2023년 김해공예품대전과 제42회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예원요의 강길순 작가는 이천에서 진례로 이주하여 활동한지 10년 차가 되며 올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한중일 레지던스 입주작가전에 참가하고 있다.
강길순 작가에서 도자체험을 하느냐고 묻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방에서 체험을 하지 않는 대신 “세라공방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예원요 강길순 작가가 이사장으로, 김해지역의 작가인 고암도자기 남희숙 작가, 여송도예 임수진 작가, 꽃마루 김정효 작가, 영천도예 김영식 작가, 서정도예 박현서 작가 여성작가 6분과 함께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다양한 도예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2023년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김해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름이 닫는 시간”프로그램 10회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교육내용은 도자에 대한 이론수업을 시작으로 백자흙, 청자흙 등을 이용하여 접시, 컵, 화분, 달항아리 등 만들기, 초벌 도자기에 채색하기 등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2023 봄 대동 꽃 축제에서는 재벌한 도자기에 아크릴물감을 이용한 채색 도예체험을 하여 자신이 그린 작품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협동조합의 형태로 외부 행사나 공모사업을 통한 도자체험을 하여 큰 이익을 내지는 않지만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진행한다고 한다.
강길순 작가에게 공방에서 도자체험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도자체험을 희망하는 수요가 없고 작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성과를 못 느끼기 때문이라 답변

을 하였다. 예원요는 분청도자박물관과 분청도자전시판매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두 곳이 생기기고 나서 오히려 공방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도자체험에 있어서 비전문인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 수업을 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듣게 되었다.

⑵ 길천도예 이한길 작가와 인터뷰

도자부분에서 경상남도 최고명장으로 지정된 이한길 작가의 공방에는 넓은 체험장이 구비되어 있다. 10여 년 전에는 단체로 많은 이들의 도자 체험이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오기 몇 년 전부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는데, 김해시 관광과의 시티투어에도 있던 도자 체험코스는 단가 문제 등을 이유로 체험코스에서 제외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 이후로는 유행이 지나듯 도예 체험을 찾는 발걸음이 거의 끊어지고 없다고 한다. 공방에서의 체험은 없는 대신 요즘에는 진례 유아센터, 문화의 집,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출강수업의 형식으로 도자체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수업도 있고 만든 작품은 구워서 완성작으로 주기도 한다고 한다.
이한길 작가는 도자체험을 통해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도자를 만드는 성취감과 함께 흙을 만지는 과정에서의 촉각 활동과 흙으로 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두뇌 발전, 그리고 자연의 재료인 흙을 만지면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수반되는 치료 활동으로써 도자체험을 적극 권장한다고 한다.

⑶김해도예 박용수 작가와 인터뷰

김해도예(미다운) 박용수 작가는 2017년 도자부분 경상남도 최고 명장으로 진례 고모리에 공방이 위치하고 있다. 네이버 검색에서는 체험 공방으로 검색이 되지만 현재 공방에서 도자체험은 하고 있지 않는데 체험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도예체험을 시에서 싼 가격으로 운영하다보니 개인 공방에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체험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대부분의 진례 지역 작가들은 체험을 열지 않고 있으며 젊은 작가들은 공모사업위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 현 김해의 도예에 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
마을사업의 일환인 도예촌 거리의 벽화그리기 등이 단기로 위주의 사업으로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예도시임에도 포럼 등에서 정해진 메뉴얼, 형식과 함께 공존하는 도예가의 자유로운 소통 경로 등이 부재하며 도예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문경의 경우 작가 개인의 작품을 시에서 매입)이 턱없이 부족한 점, 분청도자전시판매관의 세일로 인한 작품 이미지 하락과 공방에 방문하여 작품을 보고 매입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판매의 어려움을 들었다.
또한, 공방에서 도예 체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예공방의 위치 지도만이 아닌 공방의 특성과 공방별 체험을 표시하는 지도 제작 등을 도예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⑷ 가람도예 주은정 작가와 인터뷰
진례에 위치한 가람도예의 도자기 체험은 원데이 클래스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였다. 체험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오전, 오후 두 차례로 초벌한 기물에 페인팅을 하거나 직접 접시나 컵을 만들면 소성하여 완성품으로 보내어진다. 참가 비용은 만들기의 경우 15㎝ 크기의 경우 3만원부터 시작하여 기물이 커지면 비용이 올라간다.
개인 참가의 도자체험은 주로 주말에 한다고 한다.
가람도예의 주은정 작가도 분청도자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도자기 체험으로 인해 공방을 찾아와서 도자기 체험을 하는 참가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였다.

⑸ 도연도예 손현진 작가 인터뷰
도연도예의 경우는 공방에서 도자기 체험은 하고 있지 않는 대신에 초등학교에 출강을 하거나 행사에 나가서 도자기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 하는 도자기 체험은 수업 형식으로 한 학기에 두 달, 즉 일주일에 두 번씩 일년에 총 네 달간의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커리큘럼에 따라 도자 체험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작품으로 전시회도 한다고 하며 지금은 진례초등학교와 금산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행사로 나가서 하는 도자기 체험은 축제니 진로체험, 축제장 등에서 물레체험을 하는데 도연도예의 손현진 작가는 체험행사가 중요하다고 애기한다.
도연도예 공방에서 도자기 체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라고 한다. 공간의 여력이 생기면 체험을 할 것이며 도자체험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면 공방간에 경쟁력이 높아져서 질 좋은 수업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⑹ 효원도예 김일권 작가 인터뷰
효원도예 공방에서 도자기 체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진

영 제일고 , 수산초, 유아체험장 등 주로 학교 출강으로 도자기 체험 수업을 하였는데 도자기 체험 내용은 흙을 가져가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주로 원데이클라스였다고 한다. 효원도예에서는 도자기 체험보다는 벡스코, 킨덱스 등 행사에서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김해도예협회의 사무국장을 엮임하고 있다 보니 협회에 대한 시의 지원 등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⑺ 김해도자공방찾기

아래 사진은 김해도예협회에서 코로나 이전에 만들었던 “김해도찾기”라는 사이트의 첫 화면이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문구가 뜨고 있다.

“김해공방찾기”사이트는 공방의 위치를 소개하고 김해도예협회에 소속된 작가들이 각자의 공방의 특징과 작가의 관심분야 등을 작가가 직접 소개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 지원이 이어지지 않아 운영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는 현 김해 지역의 도예에 대한 실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도예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 김해 도예산업과 도예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⑻ 진례 지역 이외의 봉황동, 진영, 장유 공방 등지에서 도자체험을 하고 있는 공방이 있다고 도예가 인터뷰를 통해 듣게 되었다. 김해 지역에서 도자체험이 진행되는 공방, 공방 지도, 공방별 특성 등의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다.

3) 분청도자박물관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도자체험

김해시에서 도자체험이 주로 진행되는 분청도자박물관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도자체험을 조사해 보았다.

⑴ 분청도자박물관 도자체험

세라믹 스튜디오는 분청도자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도자체험 공간으로 도자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도자체험

도자체험은 박물관 홈페이지에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11시, 다음달 체험 예약이 오픈된다.

① 주말체험(정기 체험)

분청토를 사용하여 접시, 머그컵 등 자유롭게 나만의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13:00, 14:10, 15:10, 16:20  4회 운영한다.

1명(1팀)으로 선택 시 5명까지 체험가능하다. 체험비는 개인은 12,000 원, 단체: 11,000 원이며 소요시간은 50분이다.

주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판 성형 후 코일링으로 작업한다.

그림 12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⑵ 체험종류

①알록달록 접시꾸미기

주로 유아 대상이며 기물에 색흙을 이용 접시를 꾸민다. 체험비는 15000원이다.

그림 13 알록달록 접시 꾸미기

②나만의 머그컵꾸미기/ 도자기인형꾸미기/도자타일 액자꾸미기
재벌된 기물에 세라믹펜으로 꾸미고 오븐에 구워내는 방식이다.
체험비는 도자타일은 6000원, 두 가지는 7000원이다.

그림 14 타일 액자꾸미기

그림 15 도자기 인형꾸미기

③마블링 접시 만들기
다양한 색의 흙을 마블링해서 접시를 만드는 체험으로 주로 성인대상이다. 체험비는 15000원이다.

그림 16 마불링 접시 만들기

㈏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 직원과 김해지역 도예가가 진행한다.
① 김해시민 도예대학
성인을 대상으로 15주 과정으로 연 1회 모집하며 기초 도예강좌 및 학술특강 실시, 타지역 도자관련 박물관 및 우수 도예마을 탐방을 한다.
② 어린이 도예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2회 4주 과정으로 방학을 맞이하여 도자체험을 쉽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도.시.락:도자기를 즐기는 시간
6인 내외의 소규모로 4시간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로 차전문가와 함께 차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다.
㈑ 문화행사 – 전통가마 불지피기
박물관 전통가마의 불지피기는 연 1회 6월 첫째주 토요일 사전예약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가마에 사용된 숯을 이용한 바베큐 등을 진행한다.

그 외에 분청도자박물관에서는 가야문화축제와 봉하마을 어린이날 행사 때에는 외부에 나가 부스에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 2)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도자관련 프로그램은 건축도자프로그램과 도자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⑴ 건축도자프로그램

건축과 도자를 접목한 모자이크 타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트-키친]과 나만의 공룡을 디자인하는 [컬러링세라믹]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 재료인 10여 가지 색 타일과 백자공룡 및 세라믹 펜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본다.

그림 18 컬러링 세라믹

박물관 개관일에 1일 5회 10:30~11:25,13:00~13:55, 14:00~14:55, 15:00~15:55, 16:00~16:55 운영한다.

<아트키친 체험장> 참가비는 타일액자 10,000원, 타일액자(20인 이상) :8,000원, 컬러링 세라믹은 10,000원, 소품 15000원으로 단체는 <타일액자>만 체험 가능하다.

그림 20 타일액자와 소품

⑵ 도자체험프로그램

상주하는 도예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흙을 판성형과 코일링으로 컵이나 접시를 만드는 체험이다. 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미취학아동은 체험이 불가하다.

미술관 개관일에 하루 4회 10:30~11:30,13:00~14:00, 14:30~15:30, 16:00~17:00 운영한다. 체험비는 개인은 1만원, 보호자 입장권은 2,000원, 20인 이상 단체는 8,000원이다.

그림 21 도자체험

분청도자박물관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도자기 체험은 sns를 통해 축제나 이벤트 전시 등 지속적인 노출로 홍보가 잘 이뤄지고 관의 특성상 지원에 의해 개인 공방에 비해 싼 가격에 체험을 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 예약이 편리하고 많은 체험 후기를 통해 도자기체험에 대한 정보도 얻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김해지역의 도자기 체험은 분청도자박물관과 클레이아크 미술관에서 주로 예약하고 체험하게 된다. 아쉬운 점은 김해 지역의 특색이 담긴 도자기 체험, 예를 들면 분청사기 기법을 활용한 도자기 체험이나 전시와 연계한 도자기 만들기 등으로 도자체험에 차별화를 두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김해시 홈페이지 관광포털에서 도자 체험 안내와 김해의 도자 문화에 대한 안내도 보강될 필요를 느낀다.

## 3. 우리나라 도자 도시의 도자체험 온라인 조사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로 유명한, 국제도자예술행사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이천, 여주, 광주와 강진, 문경 지역에서는 도자기체험 예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온라인상으로 검색해 보기로 하였다.
포털 사이트 구글과 네이버를 이용해서 도자기 체험을 검색하였다.

1)한국도자재단 (http://dojasesang.net/index.asp)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국도자재단의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자미술관 이천세라피아와 곤지암도자공원, 경기생활도자미술관 여주도자세상, 분원백자자료관(광주분원)을 소개하고 있다. 도자여행에서는 도자이천세라피아와 곤지암도자공원의 체험이 링크되어 있고 체험교실 소개로 이천의 토락교실, clay play교육실(광주), 아카데미가 소개되어 있다.

2) 이천 세라피아의 도자 체험
:토락교실(http://dojasesang.net/03art/11.asp)
이천의 토락교실(土樂敎室)은 이름부터 눈길을 끄는데 크게 흙놀이공방 프로그램과 지역연계프로그램이 있으며 공예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창작공방 프로그램 안내도 나와 있다.
⑴ 흙놀이 공방 프로그램
① 1끝나고 1로모여
혼술, 혼밥을 위한 1인 식기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20세이상 성인으로, 기간은 3월 한달간 월, 수 오후 19:30~21:30이며, 비용은 20% 할인가 8만원이다.
② 딩동댕, 음악탐험대
도자악기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초등4학년 이상으로, 기간은 5월부터 10월 매주 토 또는 일요일 14:30 120분 소요예정이며 비용은 3만원이다.
③ 우리가족 음악만들기
가족 이야기를 가사로 만들어 노래로 불러보는 음악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자녀를 둔 가족으로, 기간은 5월부터 10월 매주 토 또는 일요일 10시, 소요 시간은 180분 비용은 4회 8만원이다.
④ 어린이 예술 탐험대
미션을 통해 재료를 얻고 나만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9세 이상이며, 기간은 4월부터 11월 매주 토 또는 일요일 1회차는 10시, 2회차는 14시이다. 소요 시간은 120분, 비용은 3만원이다.
⑤ 어린이 예술 탐험대(유아)
미션을 통해 재료를 얻고 나만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6-7세, 기간은 4월부터 11월 매주 수요일 16:30, 60분 소요 3만원이다.
⑵ 지역연계 프로그램
예술문화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도자 관련 프로그램이다.
문화취약지역 및 기관을 대상으로 1월부터 11월 사이에 날짜를 협의하며 비용은 모든 기관 동일하게 15000원이다.

⑶ 창작공방 작가교육

한국도자재단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정된 도예작가들의 작품 제작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경기도자박물관 체험교실 clay play 교육실 (http://dojasesang.net/03art/g06.asp)

⑴ 개인 및 가족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며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12월 주말 및 공휴일, 11월과 12월은 매주 일요일 <세라믹 몬>프로그램만 운영된다. 장애인 본인에 한해서 50% 감면이 있다.

① 백자 색을 입다(페인팅)

프로그램은 전시교육과 전통문양의 소망담은 그릇 만들기로, 부모 1인과 6세 이상의 자녀 1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1회당 10가족 한정이며, 토요일 12:30~14:00 90분 소요, 참가 비용은 3만원으로 1가족이 2작품을 만들어 간다.

② 우리가족 질그릇(흙빚기)

프로그램은 전시교육과 흙으로 빚은 가족 그릇 만들기, 부모 1인과 6세 이상의 자녀 1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1회당 10가족 한정이며, 토요일 14:30~16:00 90분 소요, 참가 비용은 3만원으로 1가족이 2작품을 만들어 간다.

③ 세라믹 몬(전사)

프로그램은 교육영상과 워크북+클레이와 머그컵 만들기로, 어린이만 참가하며 회당 10명, 일요일 10:30~11:30, 13:30~14:30, 15:00~16:00 3차례 60분간 체험하여 참가비는 2만원으로 1인 1작품을 만든다.

⑵ 단체 프로그램

20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2023년 3월~ 6월, 2023년 9월~ 11월 운영, (학교)기초생활 수급자는 교육비가 무료 지원이고 장애인 정상가의 50% 할인이 된다.

① 박물관 탐험대

프로그램 내용은 도자기로 알아보는 시대별 이야기 (전시교육), 문양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나의 소망 문양 그리기 (페인팅), 유물 관찰과 깨어진 유물 복원하기 (학교 단체 선택).
소용시간은 90~150분이고 비용은 2만원이다.

②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내용은 조선시대 분원이야기 (교육영상), 조선시대 분원 백자 이야기 (워크북), 문양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나의 소망 문양 그리기 (페인팅) 으로, 소요시간은 80분으로 비용은 2만원, 참여기관 혹은 학급에 찾아가서 진행이 된다.

⑶ 시즌 이벤트 프로그램

① 도자편지

2023년 3월~5월 운영, 어린이와 성인 대상으로 200명 선착순 참가신청을 받아 10명에게 수상하였다. 체험진행방법 영상자료와 체험키트를 배송하여 비대면으로 진행, 가족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도자기 편지로 전하는 <세라믹 러브레터>와 스승의 날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도자기 편지로 전하는 <땡큐쌤cup>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택하는 구성이다.

② 여름방학 어린이 특별프로그램 [임금님 찬s]

조선시대 임금님이 사용한 밥그릇을 재미있는 영상과 체험을 통해 알아보는 내용으로, 2023.7~8.26 방학동안 주중과 주말, 공휴일 각각 운영하여 부모1인과 자녀1인의 가족이 참여, 참가비는 2만원 1가족이 2작품을 만드는 방학특별 프로그램이다.

③ 전시연계 프로그램

사전 예약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며, 어린이와 성인 참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전시 관람과 교육으로 구성된다. 성인은 흑자 금장식을, 어린이는 동물모양제기를 만들었다.

⑷ 지역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① 우리고장 문화유산 탐방

2023.5-11까지 운영, 6회에 걸쳐 초등단체와 가족을 대상으로 고장의 우수문화유산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한 탐방은 '우리고장 '선사시대' 영상, '신석기 시대 건축과 생활' 팝업 북,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체험이, 초등 5-6학년 대상으로는 '조선시대 분원이야기' 영상, '조선시대 분원이야기' 워크북, '청화백자운룡문항아리' 교육키트를 각 학급에서 진행한다.

초등자녀를 둔 가족 대상으로 경기도 도자박물관 조각공원 내에서는 '광주 삼리구석기유적 소개 · 석기 제작 시연과 사용법 알아보기 · 인류 진화에서 불의 의미 · 선사시대 불 피우기 체험'을, 전곡선사박물관에서는 '연천지역 가마터와 도자기 유물 소개 · 조선시대 길상문의 숨겨진 의미 · 청화백자 만들기'의 내용이다.

② 나는야 고고학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참가비는 무료로 2023. 5~11 기간 동안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직업군 중 고고학자에 대해 이해하고 유물의 발굴과 복원 등의 경험을 통해 가족이 함께 진로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③ 같은 마음 다른 문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전예약제이다.
90분 소요시간이며 내용은 세 가지로, 프로그램1은 시대 별 도자기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알아보고 · 상감기법, 양각기법, 회화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베이킹, 비누아트, 도자기 페인팅 등으로 체험, 프로그램2는 전통문양 속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 가족을 상징하는 특별한 문양을 디자인해보자 · 우리 가족의 특별한 문양을 담은 가훈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3은
복을 기원하는 전통문양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소망(복)을 기원하는 청화백자 만들기이다.

4) 이천
구글에서 '이천 도자기체험'이라고 검색해 보았다.
먼저 이천지역의 도자체험은 '경기관광포털'에 '이천 도자기마을 예스파크 도자기체험 이천 도자문화마켓'이 나의 여행기로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이천도자기축제 사이트에 이천 도자기 마을인 예스파크 내 공방에서 상시 운영하는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 공예 체험 프로그램(유료)'에 공방명과 연락처 그리고 체험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https://www.ceramic.or.kr/renewal/sub02_1_v.html?MM=0&SM=2&bkey=42a498d466d11f6e0d52c58e583ab940
도예공방의 체험은 물레체험과 핸드페인팅이 주를 이루고 도예 공방이외의 공방도 소개되어 있다.

5) 여주
네이버에서 여주의 도자기체험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쇼핑, 블로그, 플레이스 등 소개가 다양하고 여주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테마여행의 체험여행에 도자기 체험 내용이 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여주 도자 공방명과 장소, 전화번호, 수용인원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고 공방  홈페이지로 링크된 곳도 있다.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체험은 총 4가지로, 초벌이 완료된 기물 위에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도자기 작품 완성하는 체험, 전기 물레로 점토와 물아일체 체험,  판성형과 인화문으로 캐릭터 접시 제작, 실생활에 필요한 입체 조형 작품 만들기 체험으로 소개되어 있다. 도자기체험 장소로 안내되어 있는 곳은 여주도자문화센터 등 14곳이다.(https://www.yeoju.go.kr/cms/content/view/1756)

6) 강진
청자로 유명한 강진의 도자기체험은 강진고려청자박물관에서 주로 이뤄진다.
강진청자박물관의 도자체험 프로그램이다.
(https://www.celadon.go.kr/contentsView.do?menuId=celadon0501010000)
체험 프로그램은 조각체험, 코일링 체험, 물레(비번조) 체험이 소개되고 있다.
청자빚기 체험장은 연중무휴로 현장접수와 전화예약으로 접수한다.
⑴ 조각체험
물컵, 머그컵, 반상기 등 완성되어 있는 그릇의 표면에 글씨나 그림을 새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체험비는 물컵은 8천원(단체 20인 이상 7천원), 손잡이 있는 머그컵은 12천원, 손잡이 없

는 머그컵은 1만원, 반상기는 1만원, 소품(매병, 주병, 화병, 호)은 15천원, 접시는 1만원 매병(中)은 10만원, 주병(中)은 7만원으로 소요시간은 40분~1시간이다.

⑵ 코일링체험

흙을 가래떡 모양으로 만든 뒤, 원하는 모양으로 쌓아 올려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체험비는 비번조(굽지 않은 흙상태)는 5천원, 번조(초벌, 재벌을 통한 완성품)은 11천원(단체 20인 이상 10,000원)이다. 소요시간 40분 내외.

⑶ 물레(비번조)체험

흙을 물레에 올려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체험비는 비번조(굽지 않은 흙상태)로 5천원이며 소요시간 15분 내외이다.

7) 문경

조선초 분청사기와 백자의 도요지라는 역사성과 전통성으로 문경의 도자기를 소개하는 점이 김해와 비슷하다. 박물관 소개에 문체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사기장과 노동부 지정 도예부분 명장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문경의 도자기 체험은 문경도자기박물관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다.

문경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체험에서 체험 내용과 시간, 비용이 소개되어 있고 예약은 인증 후 할 수 있다.

체험은 일일체험으로 판성형과 자유성형으로, 개인은 15000원, 20인 이상 단체는 13,500원으로 택배비별도로 하루 4회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8) 정리

우리나라에서 도자기하면 떠오르는 도시라면 아마 여주 이천 광주 강진 등지 일 것이다.

한국도자재단에는 여주, 이천, 광주 세 지역의 도자 소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이천과 광주의 도자체험이 상세히 소개되고 예약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주시는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도자체험이 정리되어 소개, 이천시는 홈페이지 문화관광에 도자기 부분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비해 홈페이지에서 체험예약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네이버 검색 시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고 도자마을 예스파크가 있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에 경기도자박물관 도자체험 안내와 도자박물관 홈페이지 링크로 한국도자재단에서 체험 예약이 진행된다. 강진과 문경의 경우는 김해와 비슷하게 도자박물관에서 체험이 주로 예약되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체험 예약으로 링크되어 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는 관광포털의 체험 카테고리에 들어가더라도 체험에 대한 소개가 아닌 장소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다. 소개되어 있는 장소를 클릭해야만 그 장소의 체험을 알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분청도자박물관과 클레이아크미술관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 검색해야만 체험을 할 수 있다. 물론 요즘은 sns를 통해 정보를 알고 검색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을 기초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정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중 우리나라에서 공예와 민속예술로 지정된 도시는 이천, 진주, 그리고 김해뿐이다. 이러한 기반을 김해는 적극 활용하여 김해 도자에 대한 홍보와 문화적 기반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4. 일본 도예체험 온라인 조사

우리나라에서 도자체험은 흙을 직접 성형을 하여 컵이나 접시 등의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보기, 초벌이나 재벌 된 도자에 그림을 그려 넣기, 물레 체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자 기술이 전해진 일본에서는 현재 도자체험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예약 시스템은 어떠한지 온라인을 이용해 일본 내의 도자체험에 관련하여 조사하였다.
온라인 조사의 포털사이트는 [야후 재팬] 에서 검색하였고, 도예체험으로 검색을 하자 약 19,500,000건이 검색되었다. (2023.12..5.)
https://search.yahoo.co.jp/search?p=%E9%99%B6%E8%8A%B8+%E4%BD%93%E9%A8%93&fr=top_ga1_sa&ei=UTF-8&ts=4924478&aq=1&oq=tougei&at=s&ai=6a83cf73-3ce0-45e6-a647-0004bd04a283
야후 재팬 도예 체험을 검색하면 간사이·간토 등 지역별 도예교실·도예체험 랭킹 탑 10으로 그 달의 랭킹을 매겨 소개하기도 하고 각 자역별 도예 체험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아소뷰

야후 재팬 검색 결과 중 일본 전역에 위치한 582곳의 도예체험과 도예교실을 한 눈에 보고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몇 개 존재하였다.
그 중 상위에 나와 있는 사이트인 “아소뷰”로 일본어에서 놀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아소비’와 영어 보다의 ‘뷰’의 합성어로 보인다.
全国の陶芸体験・陶芸教室の体験・予約　おすすめランキング　－　アソビュー！(asoview.com)

다음은 아소뷰 도예체험·도예교실 내용이다.
⑴ 홈페이지 상단 왼쪽을 보면 첫 번째 지역을 설정 할 수 있고, 다음으로 도예체험, 도예교실을 선택하고, 세 번째로 날짜와 인원을 선택하여 검색 할 수 있다.

그림 23 자란넷 홈페이지

⑵ 인기 지역 검색

페이지를 좀 더 아래로 내리면 인기 지역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지역은 11개로 나눠져 있는데 홋카이도 18곳, 동북지역 38곳, 간토지역은 도쿄를 포함하는 곳이라 167곳으로 많은 듯하며, 코신에츠(야마나시현, 나가노현.니가타현) 호쿠리쿠(토야마현, 이시가와현, 후쿠이현)지역 16곳, 토카이(아이치현,미에현, 시즈오카현) 지역은 70곳, 간사이(오사카부, 쿄토부 일대)지역 99곳, 산인.산요(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오카먀마현 일대) 지역 49곳, 시코쿠 지역15곳, 큐슈 72곳, 오키나와 지역 13곳이다.

그림 24 인기 지역 검색

⑶ 인기 체험 검색

아소뷰 내의 인기 검색으로 전동물레체험이 가능한 곳 274곳 이외에도 스노쿨링 그 외, 실버악세사리 만들기, 체험 다이빙, 가이드투어가 소개되어 있다.

전동물레체험 소개에 들어가면 장소가 링크되고 체험 소개, 가격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인기 전동물레체험도 순위별 소개되어 있다.

그림 25 인기 체험별 검색

⑷ 장르별 검색

지역별 선택을 하고 스크롤을 좀 더 아래로 내리면 도자 제작 방법별 검색이 가능하다.

각 지역 전통적으로 전승해온 도자제작 방법을 체험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색이 있고 그것을 체험 할 수 있다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소개되어 있는 제작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았다.

마시코야키(이바라키현의 전통 도자기) 6곳, 에츠케(도자에 그림 그리는 방식) 129곳, 라쿠

야키체험(잿물을 입히지 않고 그림을 그려 그 자리에서 굽는 도자기) 1곳, 쿠타니야끼(이시카와현 쿠타니지역의 잔무늬와 황금빛의 채색이 특색인 도자기) 6곳, 싯포야끼(금속을 바탕으로 한 전통공예 기법의 도자기) 14곳, 테비네리·카타토리(녹로 등을 쓰지 않고 손으로 기물을 빚는 기법) 286곳, 고이시와라야끼(녹로에서 회전을 시키며 끌칼 등을 이용하여 규칙적 문양을 만드는 도자기) 1곳, 토코나메야끼(아이치현 토코나메시 중심의 도자기) 4곳, 오라베야끼(지금의 아이치현 세토에서 만들어진 도기로 주로 다기류) 1곳, 시가라키야끼(시가현 고카시 일대에서 만들어진 도기로 너구리 장식품이 유명) 9곳, 키요미즈야키(쿄토 키요미즈절 부근에 구운 도자기). 쿄우야키(쿄토 도자기 총칭) 3곳, 아카하다야키(나라현 오조산 일대에서 만들어진 도자기)2곳, 오타니야키(도쿠시마현을 대표하는 철분이 많이 함유된 도자기) 2곳, 전동물레 274 곳, 토베야키(아이치현 이요군에서 만들어진 자기) 1곳, 하기야키(야마구치현 하기시 일대 도기) 1곳, 비젠야키(지금의 오카야마 부근 생산한 도지) 11곳, 미노야키(지금의 기후현타지미시 중심 도자기) 2곳, 아리타야키 4곳, 류큐가라스.야치몽(오키나와 도자기) 2곳, 그 외에도 도예체험. 도예교실 218곳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26 장르별 검색

⑸ 키워드로 검색

그림 27 키워드검색

키워드는 네 가지로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장 30곳, 도예 및 공예 체험학습이 어린이도 가능한 체험장 30곳, 어린이 전용 도예 체험 30곳, 학생할인이 되는 도예 체험 30곳을 소개하고 있다. 요즘 sns에 업로드를 많이 올리는 지금의 추세에 맞추어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을 키워드로 잡은 점이 시대상에 어울리게, 소비자의 취향을 잘 반영한 카테고리로 생각된다.

⑹ 검색

아소뷰의 도예체험에서 직접 입력하여 검색해 보았다. 날짜는 토요일(12/23) 큐슈지역 도예

체험으로, 인원은 어른 2명, 아이 1명을 선택하자 연령 0세부터 18세 사이 선택하는 창이 열렸다. 아이 연령을 10세로 선택하자 29곳의 공방을 보여주었다.
각 공방별로 링크도 되어있고 공방별 특색와 가능한 체험, 후기 등이 나와 있다.

2) 액티비티 재팬
액티비티 재팬은 일본 전국 도예체험·도예교실체험·투어 779곳을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홈페이지에 전동물레, 성형, 코일링 등의 도예체험이 있으며 일본 전역에서 즐길 수 있고 오카야마의 히젠야끼, 이바라키현의 마시코야끼의 가마체험 등과 같은 지역 특색 체험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추천코스라고 소개한다. 아이 동반의 가족단위 체험으로는 초벌구이 기물에 글이나 그림 그리기 등을 추천하고 있다.

그림 28 액티비티 재팬 홈페이지

액티비티 재팬의 검색조건은 먼저 일정의 경우는 당일·전일·주말 예약으로, 연령, 인원, 예산, 할인, 소요시간을 시간대별 지정이 가능한데 가마체험이 있어서인지 새벽시간대도 있으며, 락커·샤워·화장실·주차장·탈의실 유무의 시설선택, 초급자용·상급자용·라이센스유무·원데이, 단골한정의 레벨선택, 그 외에 식사가능·일인참가·애완동물동반·세계유산·실내외·당일치기·마중·여성인기·커플·우천시 진행·아이동반·외국인추천·단풍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0 액티비티재팬 검색조건

그림 29 검색조건

3) 자란넷

관광지·관광이벤트· 숙박 예약 사이트인 자란넷이란 곳에서도 도예체험이 가능한 곳을 검색해 볼 수 있다. https://www.jalan.net/kankou/g2_S0/?screenId=OUW3801(자란넷)

지역을 일본전역으로 설정하고 도예체험을 검색하자 총 1,721곳이 결과로 나왔는데 지역과 장르를 선택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지역 선택을 큐슈 사가현으로, 장르는 공예 도예체험으로 검색을 하자 12월 추천지로 66곳을 추천하였다.

그림 31 자란넷 홈페이지

이상과 같이 온라인에서 일본 전역의 도예체험을 한눈에 편리하게 검색하게 되어 있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다. 세부 검색사항도 다양하며 지역별 순위가 매겨지기도 하고 지역적 특색이 있는 도예체험을 찾아 볼 수도 있으며 도예체험뿐만 아니라 숙소 연계, 주변 관광지, 주변 즐길 거리 소개도 잘 나와 있어 온라인으로 손쉽고 유용하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약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인프라의 조성과 함께 지역적 특색이 있는 도예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호감도가 상승하고 좋은 색다른 기억으로 남아 재방문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 5. 마무리

김해 지역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가야시대부터 얇지만 단단한 김해토기를 만들어내고 그 시대와 함께 고려시대 청자, 조선 초 분청사기, 조선 백자로 변모하고 임진왜란 때 김해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중에는 일본 아리타 도자기의 어머니로 불리게 된 백파선이라는 인물이 있었으며 도자를 만들기 좋은 환경으로 전국각지에서 진례로 도예가가 모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도예촌이 되었다. 김해는 공예와 민속예술부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고, 분청사기만을 전면에 내세워 축제를 시작한 최초의 지역이며 도예작가 70% 이상이 분청사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김해지역 도자문화의 발전과 향유를 위해서, 도자문화와 가장 쉽고 친숙하게 만나는 방법인 도자체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조사는 김해 지역에서도 도예촌인 진례 지역을 중심으로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도예 작가와의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진례면에 위치한 도예 공방에서의 도자체험은 현 시점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오히려 진례 이외에 위치한 공방들에서 도자체험을 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김해의 도자체험은 진례에 위치한 분청도자박물관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진례에 자리 잡은 분청도자박물관은 김해지역 도자의 역사를, 분청도자전시판매관은 김해지역 도예가의 도자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건축도자미술의 전시를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라는 장점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청도자박물관과 클레이아크 미술관에서의 도자체험은 사전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도예공방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에 체험할 수 있으며 두 곳 모두 이벤트와 전시 등의 꾸준한 SNS홍보와 홈페이지 구축으로 예약이 손쉽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하여 진례 지역의 공방에서 보다 선호하며 도자체험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진례 지역의 대부분의 도예가는 분청도자박물관·클레이아크 미술관과 진례 지역 도예공방과의 공생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고 있었다. 김해지역만의 도자공방 특색과 세부적인 지도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도예가 분의 의견에 수긍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도자 도시로 유명한 이천, 여주, 광주, 강진, 문경 지역의 도자에 대한 소개와 도자체험은 어떠한지 온라인 조사를 해 보았다.

한국도자재단에서는 이천, 여주, 광주의 도자문화를 소개하고 이천의 토락교실, 광주의 clay play교육실의 도자체험 예약 시스템까지 연계되어 있었다.

이천, 여주, 광주 지역의 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니 도자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주시는 문화관광 분야에 도자체험이 가능한 곳이 정리되어 소개되어 있고, 이천시는 문화관광에 도자기 부분 카테고리가 잘 만들어져 있는 반면 체험예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네이버 검색 시 체험 가능한 장소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도자마을 '예스파크'로 체험 예약이 가능하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문화관광에 경기도자박물관 도자체험 안내와 도자박물관 홈페이지 링크로 한국도자재단에서 체험 예약이 진행되도록 구축되어 있다. 이천, 여주, 광주는 명실상부한 도자 도시답게 도자에 대한 소개와 홈페이지 구축, 체험까지의 연동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청자의 고장 강진과 분청사기와 백자를 내세운 문경의 도자체험은 김해와 비슷하게 도자박물관에서 체험이 주로 예약되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체험 예약으로 바로 링크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도공들에 의해 도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만의 도자문화를 꽃 피우게 된 일본의 도자체험은 어떠한지 온라인 조사를 해 보았다.
구글 코리아에서 '도자체험'을 검색한 결과가 340만 건 인데 비해, "야후 재팬"에서 '도예체험'이라고 검색하자 1300만 건(2023.12.6. 시점)이 넘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도자체험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상정하고 검색하여 도자체험을 예약하는데 비해 일본 내에는 전국단위로 도자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아소뷰', '자란넷', '액티비티 재팬' 등의 사이트가 존재하였다. '아소뷰'라는 사이트는 일본 전역의 도예체험을 선택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전통도자 기법을 선택하여 체험할 수도 있으며 주변 관광지와 즐길 거리도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도자를 통해 관광의 연계까지 잘 되어 있었다. 또한 지역별 통합된 도예체험 예약 시스템도 있고 체험 인기 순위 소개 등 선택의 폭이 넓게 잘 구축이 되어 있었다. 사이트 '자란넷'은 숙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었고 '액티비티 재팬'도 지역별, 내용별 선택과 함께 시간대, 부대시설 등 다양한 부가사항 선택하여 검색이 가능하였다. 즉, 일본 도예체험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전국단위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도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검색해보고 다양한 도예체험을 선택할 수 있고 도예체험뿐만 아닌 여행이나 관광스케줄을 한 번에 짤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도예체험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도자체험은 체험자에게는 도자 문화의 이해와 체험의 즐거움을, 도예공방은 공방만의 특색을 선보이고 이익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상생하는 방안으로써, 지역에서는 도자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며 미래를 창출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일 것이다.
김해시는 방과후 수업이나 체험학습을 적극 활용하는 등 김해의 도자문화를 시민들부터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포털에서 김해 도자문화를 바로 인지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 분청도자박물관으로 링크를 하지 않더라도 도자체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체험예약이 간편하게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도예공방의 각 특색와 위치 등을 안내하는 지도의 제작 등을 시작으로, 김해에 와야지만 체험 가능한 김해만의 독특한 도자기 체험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내고, 좀 더 나아가면 도예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커다란 과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먼저 홈페이지 정비를 하고 김해에서 즐거운 도자체험을 할 수 있고 김해가 도자의 고장이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이들에게 김해의 유구하고 빛나는 도자문화를 알리는 기회와 근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

참고자료

1.<삼국시대 영남지역 도질토기 생산과 유통-4~5세기를 중심으로>
조성원. 영남고고학회 2014.
2.[전문가가 들려주는 테마가 있는 가야이야기-삼한삼국시대 김해지역의 토기문화]
조성원. 대성동고분박물관
3.[가야토기와 가야토기]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4.[숨 쉬는 도자기, 옹기 : 자연을 닮고 삶이 묻어나는 2010. 이야기] 서해문집. 홍상순 저.
5.[옹기 : 숨쉬는 항아리, 우리 삶과 신앙이 담긴 옹기그릇의 모든 것]
열화당 2006 이영자, 배도식 저.
6.[우리나라 옹기]동문선 2004. 송재선 저.
7.<분청사기의 변천과 지역성 >박경자. 국립광주박물관. 2018
8.<조선 전기 공납용 백자제작에 따른 분청사기 양식변화>
박경자. 박형순.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0
9.[조선 도자, 히젠의 색을 입다]이정근. 국립진주박물관. 2019
10 [알기쉬운 한국도자사] 유홍준 ; 윤용이 공저. 학고재. 2001
11.국립중앙박물관. 분청사기 백자실.
12.울산옹기박물관
13.김해분청도자박물관 홈페이지
13.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
14.여주시청 홈페이지
15.이천시청 홈페이지
16.광주시청 홈페이지
17.강진군청 홈페이지
18문경시청 홈페이지
19.김해시청 홈페이지